

편장자구법(篇章字句法)으로 보는 이우걸의 시작법

-시집 『이명』에 나타나는 체질적 지향성

이형우*

-차 례-

1. 들어가는 말
2. 편법(篇法)으로 보는 시작법
 - 2.1. 작제법(作題法)
 - 2.2. 화자
3. 장법(章法)으로 보는 시작법
 - 3.1. 형식
 - 3.2. 장(章) 생성법 - 열기[초장]
 - 3.3. 장(章) 생성법 - 받기[중장]
 - 3.4. 장(章) 생성법 - 닫기[종장]
4. 자구법(字句法)으로 보는 시작법
 - 4.1. 『이명』의 어휘[체언]
 - 4.2. 『이명』의 어휘[용언]
5. 시공 인식으로 아우르는 시적 지향성
 - 5.1 시간 인식
 - 5.2 공간인식
6. 나가는 말

[국문초록]

이 글은 편장자구법(篇章字句法)으로 시작법을 분석했다. 그 텍스트로 이우걸의 시집 『이명』을 택했다. 편장자구(篇章字句)는 동북아 고대 산문작법이다. 편법은 글 전체를 구상하는 방식이다. 장법은 단락을 구성하는 방식이다. 구법과 자법은 문장과 어휘 조탁법이다. 편법(篇法)은 글의 작동하는 체계다. 작품의 설계도다. 주제를 어떻게 설정하고, 제목을 어떻게 달고, 어떤 형식으로 완결할 것인가에 초점을 맞춘다. 그 다음은 화자를 세워야 하고, 그의 지휘 아래 초중종장을 어떤 방식으로 이어가며, 어떤 형식으로 배치할 것인가를 구상한다. 작제법, 화자 유형, 어조, 작품 형식에 해당한다. 장법은 문단을 만드는 방식이다. 전체 주제를 살리기 위해 어떤 역할을 배분하는가에 중점을 둔다. 시조로 말하면, 어떻게 각 장을 열고 닫을 것인가, 다른 장과 어떻게 연결할 것인가를 고민한다. 구법은 어절과 어절의 결합이고, 자법은 어휘 운용법이다. 시조는 편장자구에 가장 적격한 문학 장르다. 하나만 더해도 넘치고 하나만 빼도 모자란다. 시조는 바로 절제미와 조화미를 가장 잘 살릴 수 있다. 역으로, 편장자구법을 통해 시인의 시작법을 제대로 파악할 수 있다.

주제어 : 이우걸, 이명, 편장자구법, 화자, 시간, 공간, 현대시조

1. 들어가는 말

편장자구(篇章字句)는 동북아 고대 산문작법이다. 글에는 한편을 통괄하는 원리인 편법이 있고, 단락을 구성하는 장법이 있으며, 문장과 어휘를 단련하는 구법과 자법이 있다. 편법(篇法)은 글의 작동하는 체계다. 작품의 설계도다. 시조로 말하면 주제에 따라 제목을 달고, 그것을 단시조로 쓸 것인가 연시조로 쓸 것인가, 엮시조냐 사설시조냐에 대한 선택부터 시작한다. 그 다음은 화자를 세워야 하고, 그의 지휘 아래 초중종장을 어떤 방식으로 이어가며, 어떤 형식으로 배치할 것인가를 구상한다. 편법(篇法)의 핵심은 응집성(凝集性)이다. 계획이 치밀할수록 완성도 높은 작품으로 나온다. 그것이 작제법, 화자 유형, 어조, 작품 형식이다.

장법(章法)은 산문의 문단에 해당한다. 각 문단에는 한 주제가 있고, 그것을 조화롭게 이어간다. 시조의 각 장(章)이 여기에 해당한다. 특히 시조의 장법(章法)은 어휘 하나 선택에 따라 성격이 확연히 달라진다. 그래서 장법을 제대로 완성하기 위해서는 자법(子法)과 구법(句法)이 선행돼야 한다. 자법(子法)은 어휘 하나, 조사 하나, 어미 하나가 지니는 특성을 극대화한다. 형태소 하나가 지니는 힘이 얼마나 큰가를 확인하는 절차다. 한 단어가 놓이고, 여기에 조사나 어미가 결합하면 다음에 오는 어휘군들이 정해진다. 여기서 하나만 잘 못 놓이면 글 전체가 이상해진다. 전후 관계를 설정하는 자법(字法)은 환유의 원리다. 자법은 체언과 조사, 어간과 어미의 결합으로 1차 완성된다. 어절과 어절의 결합이 구법(句法)이다. 구법은 연결성이 중요하다. 어떤 관계를 설정한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따른다. 하나만 더해도 넘치고 하나만 빼도 모자란다. 이를 종합하면 편법의 완성은 자법에서 시작한다. 시조는 이러한 완벽성을 추구하는 대표적인 장르다.

이 글은 편장자구법(篇章字句法)으로 『이명』에 나타나는 이우걸의 시작법을 먼저 살핀다. 이를 바탕으로 시간 공간 인식에 나타나는 시적 지향성을 살핀다. 시공은 인간이 세상을 인식하는 네 차원으로 펼쳐진다. 그것은 개체적, 가문적, 사회적, 우주적 지향성이다. 관성이고 기율기고, 편향이다. 이로 인해 인간은 했던 말 했던 행동을 반복하며 산다.

총계 말하면 그 사람의 정체성일 수도 있다. 그래서 인간은 대부분 변하지 않는다. 습관적 동물에서 벗어나기 힘들다. 그러나 관성[기울기]은 세상을 향한 시선이고, 가치관이다. 타성인 동시에 개성이다. 개성은 그 사람을 돋보이게 하고, 타성을 그 사람을 예사롭게 한다. 이러한 모순을 극복하고 더 뜻깊은 삶, 창의적인 삶을 위해서는 지피지기(知彼知己)보다 먼저 지기지피(知己知彼)해야 한다. 나를 알아야 나를 극복할 수 있고 남을 알아야 그를 대처할 수가 있다. 그것이 건강한 삶, 조화로운 세상을 만든다. 예술 작품 역시 그런 인간적 면모가 확연히 드러난다.

이우걸은 1973년 『현대시학』으로 등단한 이후, 시적 일가를 제대로 이룬 우리 시조계의 중추다. 지금까지 그의 시조는 “단시조의 절제된 변이 정도를 늘 담담하게 유지하면서 시세계를 전개시킨다.”¹⁾는 전제하에 모더니티를 조명한 연구, “자본주의 사회에 대한 부조리에 대한 시적 대응”²⁾, 서정성과 현대성³⁾, 전쟁과 국가 권력과 이데올로기의 폭력성과 연관지은 연구⁴⁾, 자연관 연구⁵⁾ 등이 있다. 그 외의 논의로는 『이우걸 시조연구』⁶⁾에 다양한 평론이 있다. 이 글은 이런 진중한 논의 위에 이우걸의 시작법이라는 현미경적 시선 하나를 보탠다. 그 텍스트로 시집 『이명』(2023, 천년의 시작)을 택했다.

1) 엄경희, 「이우걸 시조에 내포된 모더니티의 일면」, 『한국언어문화』(제49집), 2012, 292면.

2) 우은진, 「이우걸 시조에 나타난 현실 인식과 존재론적 성찰」, 『배달말』(60), 2017, 217면.

3) 우은진, 「이우걸 시조에 대한 고찰」, 『시조학논총』 제46집, 2017, 98-115면.

4) 이영탁, 「이우걸 시조에 나타난 폭력성 연구」, 『사람어문연구』 제27집, 2019, 108-140면.

5) 박효환, 「이우걸 시조에 나타난 자연 연구」, 『한국시학연구』 제66호, 2021, 13-29면.

6) 엄경희 엮음, 『이우걸 시조연구』, 태학사, 2013.

2. 편법(篇法)으로 보는 시작법

2.1 작제법(作題法)

시집 『이명』에는 총 62 수의 시가 실려있다. 총 5부로 이뤄져 있으며 1부에 12 수, 2부에 13 수, 3부에 13수, 4부에 13 수, 5부에 11 수 실려 있다. 그 뒤에 정과리의 해설이 첨부되어 있다. 각 부를 구성한 특별한 원칙은 보이지 않는다. 작품의 제목은 1어절이 47 수[76%], 2어절이 8 수⁷⁾[13%], 3어절이 7 수⁸⁾[11%]다. 종합하면 ‘명사 종결’ 제목이 53 수[85%], ‘명사+조사’ 종결 제목이 8 수⁹⁾[13%] 동사 종결이 1 수¹⁰⁾[2%]다. 크게 보면 명사 종결 제목이 61 수다. 결론적으로 『이명』의 작제법은 거의가 명사 종결이고, 1어절이 지배적이며, 간단 명료하다.

시집 제목은 시인의 무의식을 추출할 수 있는 좋은 단서다. 제목 읽기가 중요한 이유다. 제목 첫 어절은 ‘거’ 2회¹¹⁾, ‘귀’ 2회¹²⁾, ‘나’ 2회¹³⁾, ‘비’ 2회¹⁴⁾, ‘이’ 2회¹⁵⁾, ‘자’ 2회¹⁶⁾만 중복된다. 62 제목의 첫 어절을 자모음으로 나누면, 파열음 계열[ㄱ, ㄷ, ㅂ]의 자음으로 시작하는 경우가 25회¹⁷⁾[40%] 마찰음[ㅅ, ㅎ] 계열은 9회¹⁸⁾[15%], 파찰음[ㅈ, ㅊ] 계열이 7회¹⁹⁾[11%], 유성음 중 비음[ㄴ, ㄹ] 계열은 10회²⁰⁾

7) 「작은 중국집」, 「추억의 마산항」, 「해변의 모텔」, 「귀뚜라미 바다」, 「기억의 향기」, 「바람의 노래」, 「부분에 대하여」, 「사계의 노래」

8) 「나의 노트북 시대」, 「대구, 대구 사람들」, 「숲으로 된 성벽」, 「어느 날 아침」, 「와이퍼 혹은 와이프」, 「커피 자판기 앞에서」, 「흙을 위한 연가」

9) 「거울에게」, 「겨울나무들」, 「상선병원에서」, 「잎들」, 「자매들」, 「장모님께」, 「대구, 대구 사람들」, 「커피 자판기 앞에서」

10) 「부분에 대하여」

11) 「거미」, 「거울에게」

12) 「귀」, 「귀뚜라미 바다」

13) 「나무」, 「나의 노트북 시대」

14) 「비」, 「비밀」

15) 「이명 2」, 「이명 3」

16) 「자매들」, 「자화상」

17) ‘가, 개, 거2, 겨, 공, 국, 귀2, 기, 카, 커/대, 덕, 돌, 디/마, 발, 벤, 별, 봄, 부, 비2, 빗’

18) ‘사, 상, 서, 소, 숲, 시, 하, 해, 흙’

[16%], 유음[ㄹ] 계열은 1회²¹⁾다. 모음으로 시작하는 제목은 총 10회 [16%]다. 양성모음[오/아]이 2회²²⁾[3%] 음성모음[오/우]이 4회²³⁾ [6%], 중성모음[이]이 4회²⁴⁾[6%]다. 이런 현상을 종합하면 자음 중에서는 파열음 계열이 절반[48%]가까이를 차지한다. 여기에다 시집 첫 어절의 모음 중 양성모음이 28수[45%], 음성모음이 23수[37%], 중성모음이 11수[18%]인 점을 감안하면 시집 『이명』의 작제법(作題法)은 가볍고 밝은 소리[파열음/양성모음]에 중점을 두고 있다.

시집 『이명』의 제목에는 모두 81 어휘가 83회 나온다. 명사 74[76회], 대명사 1회²⁵⁾, 용언 4회²⁶⁾, 관형사 1회²⁷⁾, 부사 1회²⁸⁾다. 명사 중에서는 ‘노래’와 ‘대구’가 두 번씩 나오는 게 특징이다. 이 중 문화어가 20 어휘[총 21회 사용]²⁹⁾나온다. ‘빗살무늬토기’, ‘성벽’에서 ‘노트북’, ‘라벨’, ‘국어사전’ 등의 정신적 추구 영역과 ‘상선병원’, ‘서운암’, ‘중국집’, ‘모텔’, ‘벤치’ 등 몸관련 영역, ‘유리창’, ‘열쇠’, ‘와이퍼’, ‘마스크’ 등 대타적 화자로서의 관계망, ‘카페라테’, ‘커피 자판기’, ‘자화상’, ‘눈사람’ 등 대자적 화자로서의 공간이 다양하게 펼쳐져 있다. 관념어는 16어휘³⁰⁾가 17회 사용되고 있다. ‘노래’, ‘연가’, ‘별사別辭’가 ‘말’의 구체 현상이고, ‘앞, 시대, 공감, 기억, 추억’ 등은 말 이전의, 말로 잡은 과거다. 언어는 질서를 세우고 세상을 유지하고 이어가게 하는 원동력이다. 여기서 드러나는 이우결은 관념적이고, 주변에 관심두고 있으며,

19) ‘자2, 작, 장, 초, 추, 치’

20) ‘나2, 낙, 노, 눈, 마, 말, 무, 문, 물’

21) ‘라’

22) ‘안, 와’

23) ‘어, 억, 열, 유’

24) ‘이2, 인, 잎’

25) ‘나의’

26) ‘대하여, 된, 위한, 작은’

27) ‘어느’

28) ‘혹은’

29) ‘빗살무늬토기, 성벽, 시계, 거울, 노트북, 라벨, 국어사전, 상선병원, 서운암, 중국집, 모텔, 유리창, 벤치, 열쇠, 와이퍼, 마스크, 카페라테, 커피 자판기, 자화상, 눈사람’

30) ‘앞, 시대, 인생, 공감, 기억, 추억, 말, 노래 2, 연가, 별사別辭, 비밀, 무게, 치통, 향기, 문상, 부분’

평범하고 소탈한 사람이다. 그의 시는 여기에 대한 반어요 역설이다.

공간·자연 관련어가 13 어휘³¹⁾, 시간어가 9어휘³²⁾, ‘몸[인연] 관련어가 7 어휘³³⁾[8회 사용], 동식물이 6어휘³⁴⁾, 지명이 대구 2회, 마산항 1회, 인칭은 ‘나’가 1회 나온다. 우주적 시공을 일괄하는 어휘는 ‘사계’다. 그것이 ‘봄비, 가을, 낙엽, 겨울 나무’라는 살마들의 세상으로 드러난다. 그의 사계에는 여름이 없다. 하루도 ‘아침’과 저녁[‘노을’], 밤[‘초승달’]은 있되 대낮이 없다. 공간은 하늘의 요소인 ‘비, 소낙비, 안개비, 바람’과 땅의 요소인 ‘흙, 발자국, 물, 하류, 돌섬, 해변, 바다’ 등이 ‘덕암산, 숲’을 압도하고 있다. 이우걸의 삼재(三才)에는 관념으로서의 하늘과 현실로서의 땅이 대립요소로 작동하고 있다. 그래서 그의 노래는 중간자적 요소, 매개와 소통의 통로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현실에 대한 안타까움이다.

그것이 용언에서는 관계와 상태와 크기로, 수식언에서는 불투명과 선택으로 구체화 한다. 그는 전체를 알려고 하는 그곳이 바로 ‘사지’라 한다. ‘나의 둔감’이 난네를 건너오게 했다고 고마워 한다. (「부분에 대하여」) 막연한 화해, 추상적인 전체에 대한 동경은 우리가 깨야 하는 환상이다. 그래서 우리가 ‘부분’을 더 이해하는 일이 중요하다. 또한 평범함의 위대함, 익숙함의 특별함을 깨치라 한다. ‘혈육 같은 온지를 머금고 있’는, ‘커서 떠나거나 죽어서 돌아오거나’ ‘웃음도 울음도 삼킨 채 /그 자리에 있’는 땅에 대한 각성이 그것이다. 시류에 따라 열고 닫는 작은 중국집의 소중함, 빗소리를 따라가다가 빗소리에 묻혀버린[갈힌] 와이퍼와 와이프의 대비가 가져오는 애정과 소음의 상관성, 세월의 무상함, 소멸의 아픔을 그려낸다. 작제법으로 본 『이명』은 지극히 평범한 인간세의 절대음감과 상대음감 밝히기다.

31) ‘덕암산, 비, 소낙비, 안개비, 바람, 숲, 흙, 발자국, 물, 하류, 돌섬, 해변, 바다’

32) ‘사계, 날[日], 초승달, 아침, 노을, 봄비, 가을, 낙엽, 겨울나무’

33) ‘사람들, 자매, 장모님, 와이프, 디스크, 귀, 이명[2회]’

34) ‘나무, 역새, 잎, 개양귀비꽃, 거미, 귀뚜라미’

2.2 화자

인간은 위치에너지다. 나[화자]는 경천위지(經天緯地)의 한 지점이다. 상하라는 음양과 좌우라는 음양의 만남이다. 여기에서 위치에너지 4 유형이 파생된다. 그것이 각각 세계[우주]적[=], 사회[역사]적[=], 당여[가족]적[=], 개체[내면]적[=] 차원이다. 이러한 위치에너지를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작품이 「자화상」이다.

먼 곳을 향해 가는 3등 열차였다
누가 타고 내려도 그저 앞을 보면서
정해진 종점을 향해 쉬지 않고 달렸다

사변을 만나고, 기아에 허덕이고, 독재를 만나고, 시위에 휩싸이고
내 생이 스친 역들은
늘 그런 화염이었다

그러다 돌아보니 내가 안 보였다
다른 짐은 그대로인데 나는 어디에 있을까
맞은편 신호등 앞에
한 노인이 서 있었다

-「자화상」

‘3등 열차’라는 빈부의 음양, 누가 타든 내리든 ‘그저 앞을 보면서’ ‘정해진 종점 향해’ 내달렸던 열정의 음양, 시대의 화염으로 물든 음양이 ‘내 생’의 이정표들, 내가 나로 살았지만 ‘내가 안 보’이는 지점으로 내몰아 버렸다. ‘다른 짐은 그대로인데’ 나만 없다. 사회적 화자로서의 삶에 충실하다 개체적 화자를 잃어버렸다. 국민의 한 사람으로, 가족의 일원으로 살다보니 나를 위한 삶을 잃어버렸다. 다 있는데 그는 어디로 갔을까? 두리번거리니 건너편 신호등 앞에 서 있는 한 노인이 있다. 무상한 세월 무량한 감정이 핏기없는 진술에 녹아있다.

‘먼저 드시지요’
젊은이가 잔을 건넨다
‘아니, 시간 있는데?’
웃으며 받아 든 노인
12월 남강휴게소 앞
우산 속의
온기 한 잔

-「커피 자판기 앞에서」

말 속에 그 사람이 있다. 말은 그 사람의 가치관이고 사는 방식이다. 화자는 왜 ‘먼저 드시지요’라는 젊은이의 한 마디에 감동했을까? 별 거 아닌 걸, 그 정도에 혹하셔서, 대체 이게 무슨 시가 된다고 실으셨나? ‘우기 속의/온기 한잔’이 제대로 전해지기는 할까 하고 반문하기 쉽다. 그러나 이 풍경 속에 화자의 절망이 보인다. 국가의 부름, 가족의 의무에 충실하며 산 세대와 자신만을 알고 사는 세대의 단절을 얼마나 크게 느끼고 있는지, 그에 얼마나 마음 많이 상했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평소에 화가 많이 난 사람은 쉽사리 슬퍼한다. 반대로 평소에 슬픔 가득한 사람은 불시에 화를 낸다. 그 젊은이는 화자의 분신일 수도 있다는 점에서 자신과의 만남이고, 장유유서라는 불변의 예법이란 점에서 긍정적인 미래다. 화자는 젊은이의 그 한 마디에 믹스커피처럼 잡다한 감정들이 다 녹아버린다. 너도 녹고 나도 녹아 따뜻함이 남강의 강물로 흘러간다.

시집 『이명』의 화자는 독특하다. 화자로 나뉘야 하는 경계선이 애매하다. 일단 표면적 진술로 살펴보면 개체적 화자가 21수, 당여[가족]적 화자가 16수, 사회적 화자가 21수, 우주적 화자가 4수 정도다. 그러나 이런 구분이 별 의미가 없다. 생태계 자체가 우주여서 개체를 통해 섭리를 갈파하고, 주변을 통해 세상 이치를 추출하기에 그렇다. 그와 반대되게도 한다. 어찌면 화자 4 유형은 『이명』에서는 의미가 없을 수도 있다. 그러나 일관된 관심사는 이웃과 세상이다. 그만큼 무의식을 타고 넘는 화자, 자기 속으로 함몰되는 화자는 하나도 없다. 시집 『이명』의 화자들은 젊다. 그래서 이웃과 세상이 제대로 돌아가지 않음을 절망하

고 안타까워 한다.

3. 장법(章法)으로 읽는 시작법

3.1 형식

『이명』에는 단시조21수[34%]다. 연시조 중에서는 3연이 24수[39%], 2연이 13수[21%]다, 4연이 3수, 7연이 1수다. 단시조의 형식도 초중종 3장의 기본 구조를 갖춘 작품은 1수다. 모든 형식을 통틀어서 기본 틀을 지키고 있는 작품은 11수³⁵⁾고 나머지는 모두가 변형이다. 이런 외형을 감상하는 것도 『이명』 읽는 즐거움 중의 하나다.[편의상 연처리를 행으로 간주한다.]

2행시	3행시	4행시
와이퍼가 부지런히 빗소리를 걸어 낸다. 와이퍼가 뽁뽁거리며 빗소리를 따라간다 이윽고 빗소리 속에 와이퍼가 갇힌다	정성 다해 가꾸어도 알 수 없는 긴 여행을, 맹세한 두 남녀는 하나 되어 떠났다 그사이 비, 바람 불고 한 사람은 길을 잃었다	가을이 내 무릎 위에 찬 손을 얹었다 가쁜 숨결과 외로움이 배여 있다 사는 게 다 그런 거라고 나도 가만 손을 얹는다
5행시	6행시	7행시
생명 있는 존재들은 그 무게를 모른다 영혼을 달 수 있는 저울이 이승엔 없다 스스로 만든 저울은 저울이 아니다.	햇살 설핏하고 산 그리메 질어지면 어미 닭 품을 향해 병아리 모이듯 배들은 모이를 싣고 항구로 모여들었다	‘먼저 드시지요’ 젊은이가 잔을 건넌다 ‘아니, 시간 있는데?’ 웃으며 받아 든 노인 12월 남강휴게소 앞 우산 속의 온기 한 잔

위의 시편들에서 알 수 있듯이, 2행[연] 시는 초중장을 합치고 종장

35) 「어느날 아침」단, 「소낙비」(2), 「자매들」(3), 「바람의 노래」(3), 「나의 노트북 시대」(3), 「귀뚜라미 바다」(3), 「빗살무늬 토기」(3), 「마스크」(3), 「대구, 대구 사람들」(4), 「사계의 노래」(4), 「작은 중국집」(7)

을 나누었다.(「와이퍼, 혹은 와이프」) 3연시는 초중장을 합쳐 1행[연]으로 만들고 종장을 둘로 나누었다.(「인생」) 4행[연]시는 초중장을 그대로 두고 종장을 둘로 나눈 경우가 11수³⁶⁾로 가장 많다. 5행시는 초중장을 그대로 두고 종장을 셋으로 나눠 5행 처리한하기도 한다.(「공감», 「노을», 「억새」) 중장을 그대로 두고 초장과 종장을 각각 둘로 나눠 5행 처리한 것(「무계」)도 있다. 6행[연]은 초중종장 모두를 각각 둘로 나눈 경우(「귀」)와 중장을 그대로 두고 초장을 2행으로 종장을 3행으로 나눈 경우로 (「추억의 마산항」) 나뉜다. 7행은 조중장은 각각 2행씩, 종장은 3행씩 나누었다.(「커피 자판기 앞에서」)

연시조 2수를 배열하는 방법도 단시조와 유사하다. 「소낙비」를 제외하면 2/4행, 3/4행, 4/4행, 4/5행, 5/5행, 5/6행과 연시조를 구분하지 않고 이은 6행(「발자국」)으로 나뉜다. 연시조 3수의 배열법도 마찬가지이다. 평시조 세 수의 정형대로 나열한 시는 7수³⁷⁾[29%]고 나머지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난다. 4연시조 중에서는 「사계의 노래」와 7연 시조 「작은 중국집」이 정형성을 띄고 있다. 살펴본 것처럼, 단시조든 연시조든 변형된 시형식이 압도적이다. 그래서 『이명』은 새로움을 담는 도구로서의 고민이 담겨 있는 시집이다.

3.2 장(章) 생성법 - 열기[초장]

시집 『이명』에서 초장을 열어나가는 방식은 ‘명사[대명사]+ 수사’ 형식을 취하는 작품이 41수, 용언이 13수, 관형사가 4수³⁸⁾, 부사 2수³⁹⁾, 수사가 1수⁴⁰⁾다. 또 초장을 닫는 방식은 ‘있다/없다’가 18수⁴¹⁾, ‘~니다’

36) 「봄비3», 「별사», 「유리창», 「이명2», 「치통», 「가을», 「비», 「억새», 「말», 「낙엽», 「상선병원에서」

37) 「자매들», 「바람의 노래», 「나의 노트북 시대», 「빗살무늬토기», 「귀뚜라미 바다», 「디스크», 「거울에게」

38) 「열쇠», 「나의 노트북시대», 「말», 「발자국」

39) 「빗살무늬토기», 「커피 자판기 앞에서」

40) 「잎들」

41) 「열쇠», 「해변의 모텔», 「유리창», 「개량양귀비꽃», 「가을», 「작은 중국집», 「이명3», 「마스크», 「초승달», 「돌섬», 「벤치», 「부분에 대하여», 「말», 「흙을 위한 연가», 「나무», 「디스크», 「바람의 노래», 「거울에게」

9수⁴²⁾, ‘~이다’로 대표되는 ‘체언+ 조사’ 조합이 9수⁴³⁾, 연결형 어미 8수⁴⁴⁾, 명사 종결 7수⁴⁵⁾, 상황제시 4수⁴⁶⁾, 가정[추측] 2수⁴⁷⁾, 의문형 2수⁴⁸⁾, 명령형 1수⁴⁹⁾다.

3.3 장(章) 생성법 - 받기[중장]

중장은 초장을 받아서 대구[1수]를 취하거나 병립[1수], 반복 열거[4수]하거나, 초장을 받아 문장 완결[7수], 새로운 상황 제시[18수], 대조[4수], 상술[26수], 반문[1수]하는 양상이다. 이우걸의 중장 구성 방식은 초장을 받아 상술하거나, 새국면을 제시하는 기법을 애용함을 알 수 있다. 이를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상술[강조]	「이명2」, 「바람의 노래」, 「무계」, 「가을」, 「거울에게」, 「이명3」, 「마스크」, 「인생」, 「초승달」, 「돌섬」, 「귀뚜라미 바다」, 「소낙비」, 「작은 중국집」, 「빗살무늬토기」, 「눈사람」, 「커피 자판기 앞에서」, 「비」, 「비밀」, 「부분에 대하여」, 「덕암산」, 「숲으로 된 성벽」, 「사계의 노래」, 「기억의 향기」, 「나무」, 「낙엽」, 「상선병원에서」
새국면	「열쇠」, 「라벨」, 「역새」, 「해변의 모텔」, 「별사」, 「유리창」, 「치통」, 「카페라테」, 「자화상」, 「벤치」, 「하류」, 「겨울나무들」, 「거미」, 「흙을 위한 연가」, 「서운암」, 「공감」, 「추억의 마산항」, 「발자국」
초장완결	「자매들」, 「개양귀비꽃」, 「나의 노트북 시대」, 「물」, 「시계」, 「안개비」, 「대구, 대구 사람들」
반복[열거]	「귀」, 「문상」, 「국어사전」, 「있들」
대조	「와이프 혹은 와이프」, 「장모님께」, 「말」, 「디스크」
대구	「봄비3」

- 42) 「노을」, 「와이프 혹은 와이프」, 「이명2」, 「무계」, 「귀뚜라미 바다」, 「커피 자판기 앞에서」, 「숲으로 된 성벽」, 「공감」, 「낙엽」
- 43) 「라벨」, 「자화상」, 「소낙비」, 「겨울나무들」, 「눈사람」, 「덕암산」, 「국어사전」, 「별사」, 「시계」
- 44) 「자매들」, 「카페라테」, 「나의 노트북 시대」, 「안개비」, 「대구, 대구 사람들」, 「사계의 노래」, 「추억의 마산항」, 「기억의 향기」
- 45) 「봄비3」, 「귀」, 「역새」, 「인생」, 「문상」, 「비밀」, 「거미」
- 46) 「하류」, 「어느날 아침」, 「비」, 「발자국」
- 47) 「있들」, 「상선병원에서」
- 48) 「장모님께」, 「치통」
- 49) 「서운암」

병립	「노을」
반문	「어느날 아침」

3.4 장(章) 생성법 - 단기[종장]

종장은 시조 전체의 완결이다. 『이명』의 단시조와 연시조 첫 수의 종장들은 상황이나 풍경을 제시하는 방식이 17수, 중장과 종장을 한 문장으로 완결하는 방식이 17수다. 이어서 강조[7수], 단정[6수], 중장상술[6수], 화자의 느낌[5수], 비판[2수]과 병렬[1수]하는 어법을 구사하고 있다. 물론 연시조는 각 수마다 다르지만 이런 기법에서 벗어나지 않는다.

상황[풍경]	「열쇠」, 「해변의 모텔」, 「별사」, 「유리창」, 「와이프 혹은 와이프」, 「이명2」, 「치통」, 「가을」, 「카페라테」, 「인생」, 「나의 노트북 시대」, 「물」, 「작은 중국집」, 「안개비」, 「추억의 마산항」, 「낙엽」, 「상선병원에서」
중장완결	「이명3」, 「마스크」, 「초승달」, 「돌섬」, 「자화상」, 「벤치」, 「문상」, 「겨울나무들」, 「시계」, 「부분에 대하여」, 「말」, 「거미」, 「흙을 위한 연가」, 「서운암」, 「공감」, 「사계의 노래」, 「나무」
강조	「겨울에게」, 「어느 날 아침」, 「소낙비」, 「비」, 「비밀」, 「국어사전」, 「디스크」
단정	「역새」, 「바람의 노래」, 「개양귀비꽃」, 「무계」, 「빗살무늬토기」, 「덕암산」
상술	「장모님께」, 「하류」, 「눈사람」, 「대구, 대구 사람들」, 「숲으로 된 성벽」, 「기억의 향기」
감상(感傷)	「봄비3」, 「노을」, 「자매들」, 「라벨」, 「커피 자판기 앞에서」,
비판[반문]	「귀」, 「발자국」
병렬	「있들」

이를 바탕으로 『이명』의 단시조와 연시조 첫 수들의 장법(章法)은 의미론적으로 1)A-A'-A" 2)A-A'-B 3)A-B-B' 4)A-B-C 5)A-B-A' 라는 5 유형이 존재한다. 이는 음절 음운 단위의 유사성과 무관하다. 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경우를 A-A' 나 B-B'로 표기한다. 예를 들면 「봄비3」은 모주나 향수의 원관념이 봄비기에 초장과 중장을 A-A'로 종장은 다른 이야기라서 B로 표기했다. 「귀」는 조·중·중장 모두가 상위 개념인 '귀'에 대한 언급이어서 A-A'-A" 유형으로 분류했다. 그러나 「별

사]처럼 같은 상위 개념이라고 해도 서술 대상이 다르면[시간 경과/공간이동] 다른 항목으로 나누었다. 이런 방식으로 나눈 갈래는 아래와 같다.

A-A'-A'	「귀», 「귀뚜라미 바다», 「눈사람», 「사계의 노래», 「열쇠». 5
A-A'-B	「가을». 「국어사전», 「노을». 「봄비3», 「비», 「이명2», 「작은 중국집». 7
A-B-B'	「거울에게», 「겨울나무들», 「디스크», 「라벨». 「빗살무늬토기», 「어느날 아침». 「역새», 「자매들», 「장모님께», 「치통». 「허리», 11
A-B-C	「개양귀비꽃». 「거미». 「공감». 「기억의 향기». 「나무», 「나의 노트북 시대», 「낙엽». 「대구, 대구 사람들», 「덕암산», 「돌섬». 「마스크», 「말», 「무게», 「문상», 「물». 「바람의 노래», 「발자국», 「벤치», 「별사». 「비밀». 「상선병원에서», 「서운암», 「소낙비». 「숲으로 된 성벽». 「시계». 「안개비», 「와이프 혹은 와이프». 「유리창», 「이명3», 「인생». 「잎들». 「자화상», 「초승달», 「추억의 마산항», 「카페라테». 「커피 자판기 앞에서», 「하류», 「해변의 모텔», 「흙을 위한 연가». 39
A-B-A'	「부분에 대하여」 1

4. 자구법(字句法)으로 보는 시작법

4.1 『이명』의 어휘[체언]

시집 『이명』에는 체언[명사/대명사/수사]이 684, 용언[동사/형용사]이 433, 수식언[관형사/부사]이 93, 총 1210 어휘[기본형]가 나온다. 이것들이 결합하고 변형하여 시 본문에 2419 용례[중복포함]로 드러난다. 체언 중 빈출 어휘를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것	바람	나	때	수 ^[의]	하나	길	집
21	17	14	14	14	14	11	10

날 ^ㅁ	내	물	비	귀	그것	그녀	울음
9	9	9	9	8	8	8	8

『이명』의 시어 중에서 의존 명사 ‘것’과 ‘수’가 압도적으로 많다. 이는 일반적으로 ‘것’은 사물, 일, 현상 따위를 추상적으로 이르는 말이다. ‘-는/은 것이다’는 말하는 이의 확신, 결정, 결심 따위를 나타낸다. ‘-르/을 것이다’는 말하는 이의 전망이나 추측, 또는 주관적 소신 따위를 나타낸다. ‘-르/을 것’은 명령이나 시킴을 나타낸다. 『이명』에서는 것이 ‘계, 건, 걸, 것, 것이, 것도, 것만, 것은, 것을, 것이다, 걸까, 거라고’ 등의 변형으로 나타난다. 의존 명사 ‘수’는 어떤 일을 할 만한 능력이나 어떤 일이 일어날 가능성을 나타낸다. 그러나 ‘수식언 + 것/수’ 구조는 문장이 길어진다. 어감이 거칠다. 그래서 시적 여운이 덜할 위험이 있다.

인칭대명사 ‘나’는 ‘내’와 합하면 23회 나온다. 여기에 비해 ‘너’는 4회에 그친다. ‘나’와 ‘너’의 관계는 압도적인 ‘나’의 우위다. 제목처럼 내 귀에만 들리는 소리를 너에게 전달해 주기 바쁘다. 반면, 3인칭은 ‘그’가 6회, ‘그녀’가 8회, ‘그들’이 2회 총 16회 나온다. 객관적인 대상에게는 마음이 열려 있음을 알 수 있다. ‘물’과 ‘비’가 각각 9회씩 18회 나온다. 반면 ‘땅’과 ‘흙’은 각각 4회, 2회에 그친다.

신체 용어도 귀가 8회로 제일 많으나 두 작품에 7회 몰려 있어 별 의미가 없다. 눈[4], 입[4], 몸[4], 온몸[2]의 분포를 보인다. 시집 『이명』에는 ‘코’라는 낱말이 없다. 시집 전체에 몸 관련 53 단어[주요 체언군 어휘사전 참조] 중에서 ‘냄새’라는 말까지 없다는 사실이 특이하다. 그래서 시집 『이명』은 눈과 입으로 하는 사유라 볼 수 있다. 널리 보되 그 한계를 미각으로 보완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입은 가장 정확하지만 가장 주관적이다. 그래서 ‘울음’이 8회, ‘웃음’이 2회 나올 정도로 차갑다.

‘때’[14]와 ‘날’[9]과 ‘시간’[4]이 지칭하는 시간어가 27회 나온다. 계절어도 ‘봄’[2] : 여름[3] : 가을[6] : 겨울[1] 분포다. 시제도 ‘어제’[2] : 오늘[4] : 내일[2]과, ‘새벽’[3] : 아침[1] : 밤[6]이다. ‘바람’[風]은 17회 나오지만 비는 3회에 그친다. ‘길’은 9 수에서 11번 나온다. 그러나 빈도수로 분석하는 데는 한계가 크다. 아래 <주요 체언군 어휘 사전>으로 판단할 일이다.

주요 체언군 어휘 사전

몸	<p>살[皮], 몸, 온몸, 몸매, 몸짓, 얼굴, 민낯, 귀, 눈[目], 눈물, 어금니, 입, 혀, 목, 목청, 고개, 무릎, 손, 손길, 손뼉, 등, 땀, 가슴, 허리, 맨발, 걸음마, 뒷모습, [27] 꿈, 낯, 마음, 말[言], 맥[脈], 명[命], 목숨, 불면, 숨, 숨결, 신음, 애, 애교, 어혈, 영육靈肉, 영혼, 욕망, 욕심, 웃음, 음성, 입말, 잠, 체온, 추억, 콧대, 품 [26]</p>	
가족	<p>슬하, 가솔, 가정, 남매, 누나, 동생, 딸내미, 막내, 식구, 아내, 아들, 어머니, 어미, 언니, 자식, 장남, 처, 꿇꼴, 혈육 [19]</p>	
사람	<p>가시나, 꼭비哭婢, 과수(寡守), 군인, 남[他], 남녀, 남자, 남편, 노인, 모유, 발자국, 불화, 사내, 생애, 소녀, 아이, 어른, 여인, 여자, 이영도, 이웃, 이호우, 인간, 젊은이, 정상배, 친구, 향비, 혼인 [28]</p>	
시간	일반	<p>과거, 과거사, 그날, 그해, 나이, 날[日], 내일, 년(年), 누천년, 동안, 뒤[時], 때, 마지막, 무렵, 미동, 방금, 세월, 순간, 순식간, 시간, 어제, 언제, 오늘, 오래전, 요즘, 이제, 일찍, 잠시, 전(前), 지금, 초사흘, 한때, 한세상, 후(後), 후년 [35]</p>
	계절	<p>봄, 여름, 가을, 가을밤, 단풍잎, 겨울, 설한雪寒, 얼음, 초설 [9]</p>
	일년	<p>오월, 팔월, 시월 [3]</p>
	하루	<p>종일, 하루, 새벽, 아침, 노을, 석양, 어둠, 오후, 밤, 밤새 [10]</p>
공간	일반	<p>기슭, 길, 길모퉁이, 길목, 곳, 곳곳, 난장, 마을, 선로, 소로小路, 상류, 앞바다, 자리, 지상, 천지, 현장, 박토, 땅, 언덕바지 [19]</p>
	近遠	<p>결, 근처, 너머, 여기, 종점, 종착지, 한구석 [7]</p>
	前後	<p>뒤, 맞은편, 사방, 앞, [4]</p>
	內外	<p>안, 밖, 속, 그중, 중심, [5]</p>
	上下	<p>상류, 중류, 아래, 위, 하늘가, [5]</p>
	장소	<p>서울역, 섬, 남강휴게소, 소읍, 시장, 지구, 대구, 러시아, 마산, 우크라이나 [10]</p>
자연	계절	<p>가뭄, 장마, 홍염, 서리, 눈[雪], 눈길[雪], 눈보라, 눈비, 백설, [9]</p>
	天	<p>구름, 낙조, 달, 바람[風], 비, 비바람, 빗줄기, 소낙비, 실비[雨], 안개비, 우레, 태양, 하늘, 해, 햇볕, 햇살, 허공 [17]</p>
	地	<p>흙, 굴, 먼지, 봉오리, 산(山), 아지랑이, 이슬, 안개, 징검돌 []</p>
	동식물	<p>가시, 갈대, 고목, 단풍, 국화꽃, 나목, 나무, 나뭇잎, 낙엽, 달래, 병아리, 선인장, 수목, 숲, 씨, 양귀비꽃, 열매, 옷, 잎, 장미, 풀[草], 풋감 [21]</p>
	물	<p>강, 강물, 강변, 모래톱, 물, 파도, 해안선 호수[8]</p>
문화	<p>집, 3등, 5호실, CCTV, TV, 가등, 가사, 가스, 거실, 거울, 국화빵, 그릇, 꼬마전등, 난간, 냅비, 노트북, 마개, 마스크, 모주, 밥알, 본격本籍, 빈소, 소품, 술잔, 승냥, 스탠드, 여행, 열쇠, 와이퍼, 외쇠, 우산, 원피스, 유니폼, 의자, 이사,</p>	

	자장면, 잔, 장경, 쟁반, 저울, 전화번호, 조위금, 지우산, 차창, 창, 창밖, 칼끝, 커튼, 타월, 택배, 퇴근, 하이힐, 향수, 화분, 휴지통 55]
집필	갈필, 국어, 국어사전, 낙관, 독서, 사진, 서점, 시, 시어, 원고, 작품, 시인, 시집, 책, 파지 [15]
공연	노래, 떼창, 발라드, 시트콤 [4]
사회	객, 거리, 거래, 경기장, 공항, 구조선, 기계, 기차, 나라, 깃발, 다방, 동네, 독재, 뒷골목, 로봇, 마담, 민초, 민화, 메일, 바이러스, 밧줄, 방패, 배, 벤치, 병사, 보호벽, 봉투, 부비트랩, 빗살무늬토기, 상소문, 선사, 성城, 수공업, 수문장, 시위, 신호등, 심전도, 역, 역사, 열차, 우체통, 요양병원, 유람선, 입석, 입원, 자본, 전리품, 전장, 절寺, 조각, 조국, 조상, 종업원, 주방장, 주인, 중국집, 책사, 침병, 축분祝盆, 코로나, 콜레라, 쿠데타, 페비, 프런트, 표, 하행선, 학교, 항구, 혈연, 형벌, 호객꾼, 화염, 회사 [73]

4.2 『이명』의 어휘[용언]

용언은 총 433 어휘를 1005회 활용했다. 빈출 어휘는 아래와 같다.

없다	있다[보]	있다	같다	하다[보]	내리다	듣다	가다[본]
52	39	37	23	14	13	13	12

살다	않다	아니다	알다	오다	위하다	보다	하다[본]
12	12	11	11	11	11	10	9

가장 빈도수가 높은 단어는 ‘없다’로 52회 나온다. 보조용언 ‘있다’가 39회, 본용언 ‘보다’가 37회다. 본용언으로 따지면 ‘없다’와 ‘있다’는 ‘52 : 37’로 부재를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보조용언 ‘있다’가 앞 용언의 행동이나 변화가 끝난 상태를 지속하거나, 진행행이 계속되고 있거나, 그 결과가 지속되고 있다는 점까지 감안하면 ‘52 : 76’으로 뒤집히기도 한다. 다른 낱말들이 따라올 수 없다는 사실은, 그만큼 시집 『이명』은 존재론적 사유에 기초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본용언 ‘하다’가 9회, 본용언 ‘않다’가 12회 나오면서 부정적인 기류가 약간 강하다. 하지만 ‘하다’와 ‘못하다’의 ‘9 : 4’, 보조용언 ‘하다’와 본용언 ‘위하다’까지 합치면 ‘하다’가 ‘않다’를 압도한다. 또 ‘같다’가 23회 나오는데 비해 ‘다르다’는 단 한 번도 나오지 않는다. 유사한 어휘는 관형사 ‘다른’이

있을 뿐이다. ‘맑다’[9]에 대비되는 ‘적다’는 없다. 이를 통틀어 보면 시집 『이명』은 존재론적, 긍정적, 동일성의 사유를 많이 담고 있는 시집임을 알 수 있다.

‘가다’는 본용언이 12회, ‘오다’는 본용언이 11회로 엇비슷하다. 그러나 보조용언 ‘가다’가 9회, 보조용언이 ‘오다’가 3회다. 이는 ‘말하는 이, 또는 말하는 이가 정하는 어떤 기준점에서 멀어지면서 앞말이 뜻하는 행동이나 상태’에 더 비중을 두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 ‘알다’와 ‘모르다’는 ‘11 : 7’로 기울어 있고, ‘살다’[12]와 ‘죽다’[1]는 압도적으로 생존에의 본능이 강함을 알려준다. 그 터전의 불안함이 ‘올다’[6]와 ‘웃다’[1]의 비율로 나타난다. ‘맑다’[7] : ‘흐리다’[5], ‘떠나다’[6] : ‘남다’[6]는 엇비슷하다. 크다’[2]와 ‘작다’[2]는 대등하지만 별 관심사가 아님도 알 수 있다. 이처럼 용언으로 살피는 자법(字法)은 화자의 무의식을 적나라하게 드러내는 작업이다. 수식언을 선택하는 이유도 마찬가지다.

5. 시공 인식으로 아우르는 시적 지향성

5.1 시간 인식

시간 인식은 관계 속에서 일어난다. 평소에는 무의식적으로 지내다가 감정[哀怒喜樂]을 통해 시간을 느낀다. 의식이나 자각은 몸의 사건이다. 몸은 환경의 지배를 받고, 환경은 시간이라는 이름으로 몸을 지배한다. 여기에는 ‘머물고 싶은 시간과 그러고 싶지 않은 시간’이 상충한다. 우리는 그 항목을 매 순간 선택하고 처리하면서 살아간다. 순간 선택은 은유고, 그것이 생성하는 관계망은 환유다.

와이퍼가 부지런히 빗소리를 걸어 낸다, 와이퍼가 뿅뿅

거리며 빗소리를 따라간다

이윽고 빗소리 속에 와이퍼가 간헐다

-「와이퍼 혹은, 와이프」

시간은 전후(前後)에서 일어나는 사건이다. 여기서 애노희락(哀怒喜樂)이 따르고 그것이 완급으로 나타난다. 애노희락(哀怒喜樂)은 방향성이 있다. 방향이 높낮이를 만들고 완급(緩急)은 박자[強弱]와 장단을 만든다. 완(緩)은 약박(弱拍)으로, 에두름으로, 길게[長] 나타난다. 급[急]은 강박(強拍)으로, 직설로, 짧게[短] 나타난다.

차는 달리고 비가 내린다. 얼마 오지 않았을 땐 와이퍼가 뽁뽁거리는 소리가 들린다. 부지런히 빗줄기와 승부를 벌인다. 급하게, 강박으로, 짧은 구간을 되풀이하며 용을 쓴다. 그러나 빗줄기가 거세질수록 마찰력은 줄어든다. 어느새 빗줄기에 그 소리가 잠식되어 버렸다. 존재감마저 사라져 버렸다. 급박한 리듬은 묻혀 버렸다. 안간힘 다 하는 모습이 애처롭다. 거기에 아내의 모습이 겹친다. 와이퍼와 와이프, 한 음운 차이이다. 화자를 위해 헌신하고, 세월의 빗줄기에 갇혀서, 이제는 유야무야(有耶無耶) 된 아내다. 그러나 아내의 뽁뽁거리는 소리는 화자를 지켜주기 위한 길라잡이였다. 현실감 없는 화자를 지탱하게 한 중심추였다. 이제 그 아내가 세월 속에 갇혀 버렸다. 아내의 잔소리가 있어 화자는 존재했다. 아내의 부재는 곧 화자의 부재다. 뽁뽁은 헌신의 의성어다. 와이퍼만으로 와이프를 노래했다. 슬픔을 저렇게 노래한 경지가 새삼스럽다.

이우걸의 「팽이」를 기억하는 사람들은 『이명』이 참 밋밋했을 수도 있다. 두 눈 부릅뜨고 현실과 직시하던 당찬 그 화자가 간절했을 수도 있다. 그러나 「와이퍼 혹은, 와이프」가 그런 의문에 대한 충분한 답이 되지 않을까 싶다. 우리 시조가 나아가야 할 기법의 표본이다. 진한 감동은 어디서 오는가를 제대로 보여준다. 그래서 이 한 편으로도 『이명』은 충분하다. 세월은 흘렀고, 어투도 바뀐다. 『이명』은 그런 경계선을 넘었선 징검다리다. 성패는 지금부터다.

『이명』의 시간은 대부분 완만하게 흘러간다. 감정이 배제된 작품이 「나무」와 「가을」과 「말」 정도다. 노기를 띤 작품이 4수⁵⁰⁾, 몸이 유쾌함이

50) 「물」, 「어느 날 아침」, 「거울에게」, 「마스크」,

3수⁵¹⁾, 기쁨을 담은 작품이 16수⁵²⁾, 나머지 36수가 슬픈 정서를 담고 있다. 「서운암」에서 보이는 격한 분노, 「노을」에서 보이는 비통함을 제외하면 하나같이 잔잔한 호흡법이다. 『이명』의 시간은 대부분의 감정들이 완만하게 흘러간다.

5.2 공간인식

『東醫壽世保元』의 공간은 상하(上下)를 중심으로 좌우가 펼쳐진다. 상하는 대동(大同) 공간과 각립(各立) 공간이다. 전자는 누구에게나 공평한[天時-世會-人倫-地方] 관념적 공간이고, 후자는 사람마다 다른[事務-交遇-黨與-居處] 실제적 공간이다. 좌(左)는 나만의 공간이고 우(右)는 사회적 공간이다. 내 공간은 나의 知行이 통하는 곳, 내 뜻대로 실행할 수 있는 곳이지만 사회적 공간은 재록(財祿)의 상대성이 작용하는 곳, 내 맘대로 움직일 수가 없다. 삶 속에서의 공간은 나와 사회가 대립, 갈등, 타협, 조화를 이루는 곳이다. 삶은 이 두 공간의 관계에서 결정된다. 여기에는 ①개인 절대 공간 ②개인 우위 공간 ③대립 공간 ④조화 타협 공간 ⑤외부 우위 공간 ⑥외부 절대 공간으로 나뉜다. 시집 『이명』의 공간은 조화와 타협의 공간이 23수로 가장 많고 그 다음이 사회 우위 공간 22수다. 개인과 사회가 대립하는 공간은 7수, 외부 절대 공간 6수, 개인 우위 3수, 개인 절대공간 1수로 나타난다. 이렇게 보면, 『이명』의 화자들은 사회화 된 삶을 충실히 이루고 있음이 드러난다. 세상 속에서 세상과 함께 부딪치고, 타협하고, 우주의 질서에 복종하는 모습들이 연연하다. 이를 표로 나타내면 아래와 같다.

51) 「커피 자판기」, 「서운암」, 「공감」

52) 「겨울나무들」, 「대구, 대구 사람들」, 「덕암산」, 「돌섬」, 「바람의 노래」, 「벤치」, 「빛살무늬토기」, 「사계의 노래」, 「소낙비」, 「숲으로 된 성벽」, 「자매들」, 「작은 중국집」, 「추억의 마산항」, 「카페라테」, 「하류」, 「흙을 위한 연가」

공간 양상

개인절대	개인우위	대립	조화타협	사회우위	사회절대
무계	시계	역새	노을	말	서운암
	장모님계	라벨	나무	대구, 대구사람들	가을
	이명3	열쇠	낙엽	흙을 위한 연가	문상
		어느날 아침	잎들	물	인생
		유리창	숲으로 된 성벽	거울에게	상선병원에서
		디스크	덕암산	마스크	소낙비
		귀	이명2	치통	
			돌섬	나의 노트북시대	
			기억의 향기	와이프 혹은...	
			겨울나무들	개양귀비꽃	
			사계의 노래	눈사람	
			비	별사別辭	
			공감	자화상	
			바람의 노래	거미	
			벤치	안개비	
			빗살무늬토기	발자국	
			봄비3	부분에 대하여	
			하류	국어사전	
			커피 자판기...	귀뚜라미 바다	
			자매들	비밀	
			작은 중국집	해변의 모텔	
			추억의 마산항	초승달	
			카페라테		

6. 나가는 말

편법으로 살펴본 『이명』은 단시조가 21수[34%] 수다. 연시조 중에

서는 3연 시가 24수[39%], 2연이 13수[21%]다, 4연이 3수, 7연이 1수다. 단시조의 형식도 초중종 3장의 기본 구조를 갖춘 작품은 1수다. 모든 형식을 통틀어서 기본 틀을 지키고 있는 작품은 11수고 나머지는 모두가 변형이다. 제목은 1어절이 47 수[76%], ‘명사 종결’ 제목이 53 수[85%]를 차지한다. 제목의 첫 어절은 파열음 계열[ㄱ, ㄷ, ㅂ]의 자음으로 시작하는 경우가 25회[40%], 마찰음[ㅅ, ㅎ] 계열은 9회[15%], 비음[ㄴ, ㅁ] 계열은 10회[16%]다. 모음으로 시작하는 제목은 총 10회[16%]다. 양성모음[오/아]이 2회[3%] 음성모음[오/우]이 4회[6%], 중성모음[이]이 4회[6%]다. 시집 『이명』의 작제법(作題法)은 가볍고 밝은 소리[파열음/양성모음]에 중점을 두고 있다. 제목 어휘도 문화어가 20 어휘[총 21회 사용. 관념어는 16어휘가 17회 사용되고 있다. 이우걸의 삼재(三才)에는 관념으로서의 하늘과 현실로서의 땅이 대립요소로 작동하고 있다. 그래서 그의 노래는 중간자적 요소, 매개와 소통의 통로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현실에 대한 안타까움이다.

편법으로 살핀 화자는 표면적 진술로 살피면 개체적 화자가 21수, 당어[가족]적 화자가 16수, 사회적 화자가 21수, 우주적 화자가 4수 정도다. 그러나 이런 구분이 별 의미가 없다. 생태계 자체가 우주여서 개체를 통해 섭리를 갈파하고, 주변을 통해 세상 이치를 추출하기에 그렇다. 그래서 이우걸의 일관된 관심사는 이웃과 세상이다. 그만큼 무의식을 타고 넘는 화자, 자기 속으로 함몰되는 화자는 하나도 없다.

장법으로 살펴본 『이명』은, 초장을 열어가는 방식이 ‘명사[대명사]+수사’ 형식을 취하는 작품이 41수로 가장 많고, 초장을 닫는 방식은 ‘있다/없다’가 18수로 주류를 이룬다. 중장은 초장을 받아 상술하거나, 새 국면을 제시하는 기법을 애용함을 알 수 있다. 중장을 구성하는 방식은 상황이나 풍경을 제시가 17수, 중장과 중장을 한 문장으로 완결 17수다. 연시조도 이런 기법에서 벗어나지 않는다. 이를 바탕으로 『이명』의 단시조와 연시조 첫 수들의 장법(章法)은 의미론적으로 1)A-A'-A' 2)A-A'-B 3)A-B-B' 4)A-B-C 5)A-B-A' 라는 5 유형이 존재한다.

자구법(字句法)으로 살펴보면, 시집 『이명』에는 총 1210 어휘[기본형]가 나온다. 체언[명사/대명사/수사]이 684, 용언[동사/형용사]이 433, 수식언[관형사/부사]이 93 어휘다. 이것들이 결합하고 변형하여 시 본

문에 2419 용례[중복포함]로 드러난다.

시어 중에서 체언은 의존 명사[‘것[21], 수[14]’가 압도적 비중을 차지한다. 그 다음이 바람[17]이다. 인칭대명사는 1인칭 23회, 2인칭 4회, 3인칭이 총 16회 나온다. 또 ‘물’과 ‘비’가 각각 9회씩 18회 나온다. 반면 ‘땅’과 ‘흙’은 각각 4회, 2회에 그친다. 시집 『이명』에는 ‘코’라는 낱말이 없다. 시집 전체에 몸 관련 53 단어[주요 체언군 어휘사전 참조] 중에서 ‘냄새’라는 말까지 없다는 사실이 특이하다. 용언에서 가장 빈도수가 높은 낱말은 ‘없다’[52회]다. 본용언 있다가 37회다. 여기에 보조용언까지 합하면 분포도가 ‘52 : 76’으로 바뀐다. ‘가다[12] : 오다[11]’, ‘알다[11] : 모르다[7]’, ‘맑다[7] : 흐리다[5]’, ‘떠나다[6] : 남다[6]’ ‘크다[2] : 작다[2]’에 비해 ‘살다[12] : 죽다[1]’의 대비가 강렬하다. ‘울다[6] : 웃다[1]’도 그렇다. 용언을 통해 드러나는 『이명』은 존재론적, 긍정적, 동일성의 사유가 지배적임을 알 수 있다. 그것이 완만한 시간 인식으로, 사회화 된 공간으로 이어져 있다. 세상과 함께 부딪치고, 타협하고, 우주의 질서에 복종하는 모습들이다.

한 시인을 제대로 알기 위해서는 그의 작품이, 그의 시집이 각기 어떻게 다르고[同而異], 서로 다른 작품을 관통하는 맥락[異而似]은 무엇인지를 밝혀야 함이 연구의 기본이다. 『이명』을 제대로 읽기 위해서는 이우걸을 적분하고 또 미분해야 한다. 부분과 전체를 동시 고찰해야 한다. 모든 작품은 나름대로 구성 원칙이 있다. 음악의 화음[chord]이 곡 전체의 흐름을 형성하는 것처럼, 한 작품의 질서와 힘을 부여하는 것이 活法이다. 모든 작품이 지닌 정형화 된[기승전결] 틀이 正法이다.⁵³⁾ 이것이 곧 체질적 지향성이다. 사회든 작가든 다양성[活法] 속의 불변성[正法]이 표리(表裏)관계를 형성한다. 문학의 체질적 지향성은 정법(正法)과 활법(活法)을 통하여 작가가 세상을 만나는 방식이고, 작품이 존립하는 구조이며, 독자가 작품을 만나는 출구다. 작품은 작가에서 나왔으나 나름대로 격을 지니며 존재한다. 독서 행위 역시 활법(活法)과 정법(正法)의 상관성을 파악하는 행위다. 등단 50년, 이우걸이 이 땅에 세운 업적을 새삼 체화해야 할 시점이다.

53) 정민, 『고전문장론과 연암박지원』, 태학사, 2010, pp.68~69

[Abstract]

Lee Woo-geol's poetry writing method through the method of Pyeonjanggu(篇章字句)

Lee, Hyeongwoo(Sungkyul University)

This article analyzed the beginning method using the simple text phrase method. As the text, I chose Lee Woo-geol's poetry collection 『Lee Myeong』. Pyeonjanggu (篇章字句) is an ancient prose writing style in Northeast Asia. An expedient is a way of conceiving the entire text. Jangbeop is a way of organizing paragraphs. Grammar and spelling are used to control sentences and vocabulary. Expedients are the operating system of writing. This is the blueprint for the work. Focus on how to set the topic, how to give it a title, and what format it will be completed in. Next, you need to appoint a narrator, and plan how the beginning, middle, and end chapters will be continued under his direction and in what format they will be arranged. It corresponds to writing style, speaker type, tone, and work format. Jangbeop is a method of creating paragraphs. Focus on how to distribute roles to preserve the overall theme. Speaking of sijo, I think about how to open and close each chapter and how to connect it to other chapters. A phrase is a combination of words and phrases, and a consonant is a method of lexical operation. Sijo is the literary genre most suited to the role of a typist. If you add just one, it's too much, and if you take away just one, it's not enough. Sijo is the best way to bring out the beauty of moderation and harmony. Conversely, the poet's method of beginning can be properly understood through the

method of self-help.

Keywords: Lee Woo-geol, Imyung, Pyeonjangjagu method, speaker, time, space, modern sijo

[참고문헌]

■기본자료

- 이우걸, 『이명』, 천년의시작, 2023.
이우걸, 『풍경의 해석』, 동학사, 2021.
이우걸, 『이우걸 시조 전집』, 태학사, 2013.
이우걸, 『질문의 품위』, 작가, 2010.
이우걸, 『우수의 지평』, 동학사, 1989.
이제마, 『동의수세보원(東醫壽世保元)』

■단행본

- 정민, 『고전문장론과 연암박지원』, 태학사, 2010,
엄경희 엮음, 『이우걸 시조 연구』, 태학사, 2013.

■논문 및 기타 자료

- 엄경희, 「이우걸 시조에 내포된 모더니티의 일면」, 『한국언어문화』(제49집), 2012, 289-313면.
우은진, 「이우걸 시조에 나타난 현실 인식과 존재론적 성찰」, 『배달말』(60), 2017, 197-220면.
유순덕, 「이우걸 시조에 대한 고찰」, 『시조학논총』 제46집, 2017, 91-125면.
이영탁, 「이우걸 시조에 나타난 폭력성 연구」, 『사림어문연구』 제27집, 2019, 105-142면.
곽효환, 「이우걸 시조에 나타난 자연 연구」, 『한국시학연구』 제66호, 2021, 13-29면.
정미숙, 「물 위에서 노래하다」, 『계간 시작』 2023, 148-160면.